

불타는 MBC ... 5·18 광주 '생생'

일본 아사히 신문 사진 247장 발굴
1면 톱 기사로 '탄압의 현장' 보도
계엄군 무차별 폭력 생생하게 찍혀

일본의 진보계열 신문인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이 27일자(석간) 1면에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내용을 톱 기사로 게재했다. 특히 톱 기사에는 80년 당시 광주의 상황이 담긴 세개의 컬러 사진이 편집돼 눈길을 끌었다.

27일 아사히신문과 이 기사를 작성한 '타케다 하지모' 기자 등에 따르면 이날 기사는 최근 이 신문사 퇴직 사진기자의 유품에서 5·18 관련 사진이 담긴 필름이 발견됨에 따라, 5·18 주간에 맞춰 보도됐다.

이 기사에는 41년 전 1980년 5월 일본 아사히신문 사진기자 아오이 카츠오씨가 직접 광주의 현장을 찍은 247컷의 필름이 유품에서 발견됐으며, 이 사진들은 디지털작업을 통해 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1980년 당시 국내 언론사들은 검열 등에 의해 필름 원본을 상당수 빼앗겼지만, 당시 외국 언론은 그나마 사정이 나아 온전한 필름이 상당부분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날 자 1면 톱기사는 '광주사건 탄압의 현장'의 제목이던 기사가 편집됐다.

이 기사에는 1980년 5월 당시 사회부 사이트 타다오미(2014년 71세 사망) 기자의 활동상과 사진 부아오이 카츠오(2017년 78세 사망) 기사가 찍은 247컷의 필름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사진은 사진기자의 장녀 나카츠 카 마리(53)씨가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을 발견한 유족들은 "지금도 미안마등 세계 각지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다양한 형태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견된 사진 중 일부는 지난 2007년 아오이 카츠오 사진기자가 광주를 방문해 강연할 때 공개한 적이 있지만 모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발견된 필름은 247컷 중 57컷이 컬러 사진이고,



1980년 5·18 광주 현장의 사진과 내용을 1면 톱 기사로 실은 27일자 일본 아사히신문(석간).

연속 촬영된 사진은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시위에서 계엄군의 무차별적 폭력에 노출되는 모습이 생생히 찍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에 1면에 게재된 3장의 사진은 모두 컬러 사진으로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부상자를 옮기는 장면, 장갑차 주변에 계엄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습, 시위대의 방화로 불길에 휩싸인 MBC의 전경 등이다. 특히 당시 MBC가 화재로 불길에 치솟는 컬러 사진은 처음이다.

기사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18년간의 군사 독재정권이 쓰러진 이듬해, 쿠데타로 실권을 잡은 군부가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확대했다는 내용, 저항이 거셌던 광주에 공수부대를 포함한 군대가 투입됐다는 점, 통신이 차단되는 등 광주의 고립 상태 등 광주의 실상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 외신 기자만 광주의 현실을 전할 수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한국 언론은 엄격한 검열 아래 '폭도화한 학생과 시민의 내란'이라는 군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할 수밖에 없었고, 현장에 들어간 외국 기자만 실재를 전했다는 것이다.

당시 아사히 신문의 두 기사는 우연히 다른 취재진으로 한국에 입국해있던 중, 광주의 상황을 감지한 후지타카 지카즈가 이들을 현장에 파견했고, 두 사람은 군 검문을 통과해 버스·택시·도보 등으로 두 차례 현장에 들어갔으며, 총구가 겨누지는 상황 속에서 취재를 계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 5월 19·23일 5일동안 광주에서 활동을 한 것이다. 당시 아사히 신문은 이 두기자의 취재를 24일·29일자 조간에 '분노의 광주, 피와 파괴', '시민 눈앞 충격전, 무료 음식 제공, 학생들 교복 모자도 모금운동' 등의 제목으로 사진 8장과 함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 부활제 국민의힘 의원들 첫 참석

정운천·성일종 의원 초청

5·18 추모제에 이어 부활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2면)
국민의힘 정운천·성일종 의원은 27일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1주년 5·18민중항쟁 기념 부활제'에 참석해 오월영령들을 추모했다. 이들은 부활제 주최 측인 (사)5·18구속부상자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정 의원과 성 의원은 지난 17일 국립 5·18 묘지에서 열린 5·18 추모제에 5·18 유족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하는데 이어 이날 두 번째로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보수 정당 소속 의원들이 5월 관련 단체로부터 두 차례나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과거 보수정권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 논란과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소속 의원들의 5·18 관련 망언 논란이 제기된 때와 비교하면 180도 달라진 상황이다. 5월 관련단체들도 보수정당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고, 보수 정당도 이

에 응답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41주기를 계기로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을 했던 김진태, 김순례 전 의원 등이 여전히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앞으로도 오월 영령들께서 남기신 뜻을 이어받아 5·18정신을 국민대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일회성 정치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5·18 단체 회원분들을 돕기 위해 진심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제48회 광일보훈대상 영광의 수상자들

6월 6일(일) 오전 11시 빛고을시민문화관서 시상식



광주일보사는 호국·보훈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영령들의 유족과 전·공상 군경의 장한 삶을 되새기는 이번 행사 전 11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갖습니다.

- ◇ 수상자 손승연씨(상이군경 부문·71·북구 우산동)
- 박삼순씨(중상이자배우자 부문·77·광산구 소촌동)
- 신영숙씨(미망인 부문·88·북구 동림동)
- 정성채씨(유족 부문·67·북구 운암동)
- 고병돈씨(특별 부문·76·서구 동천동)

주최: 光州日報社 후원: 광주지방보훈청

'5·18 피해보상자 5천708명' '정신적 손해' 별도로 배상해야

헌법재판소 결정

국가로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 보상을 받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5·18 보상의 민사소송법상 효력을 명시한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이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1990년 8월 개정된 옛 5·18보상법 16조 2항에는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고 명시돼있다. 재판상 화해에 의한 분쟁 해결은 확정 판결의 효력이 있어 피해자는 더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현재는 "5·18보상법 조항을 보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

다"며 "보상금 등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5·18보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국가 보상금은 생활안정·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금인 만큼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가 보상금을 받은 5·18 피해자들은 2018년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5·18보상법 16조 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광주지법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정했다.

현재는 2018년 8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현재는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민주화보상법 18조2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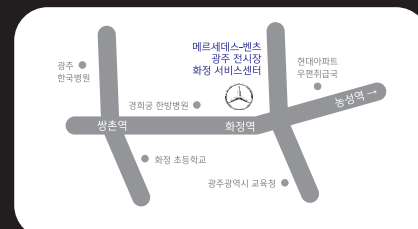
- 5·18 41주년 공식 행사 마무리 ▶6면
- 북스·'박물관의 최전선' '곤충학 강의' ▶14·15면
- KIA 정혜영 "부담 버려야 승리 지킨다"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명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Mercedes-AMG GLC & GLC Coupé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Mercedes-AMG를 직접 경험 하세요!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동충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담양대로 516(수동동)
주요 서비스센터 (062)942-2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마천로 609(만남동 206호충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6099 광주광역시 남구 영암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Mercedes-AMG GLC 43 4MATIC (배기량 2,996cc, 공차중량 1,955kg, 지동9단, 복합연비 8.3km/ℓ, 도심연비 7.5km/ℓ, 고속도로연비 9.6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12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의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운행 연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형이외에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